

##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및 스트레스가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 미 순

대구대학교

본 연구는 음악영재의 학년수준에 따른 완벽주의, 스트레스, 그리고 진로결정 유형을 조사하고자,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 Flett, 1991),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이정순, 1988), 그리고 진로결정 척도(Harren, 1984)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영재의 학년수준에 따라 완벽주의 하위 요인에서 자기지향, 타인지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역시 학년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음악영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발전,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점차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영재의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수준의 효과는 합리적 진로결정 유형과 과도적 진로결정 유형에서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합리적 진로결정 유형은 증가하나 과도적 진로결정 유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악영재의 합리적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사하였을 때,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기발전 스트레스 요인만 합리적 진로결정 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특징과 반응을 근거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향후 상담 및 진로지도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음악영재, 완벽주의, 스트레스, 진로결정 유형

### I. 서 론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학 및 과학 중심으로 영재교육을 전개해 왔으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를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술영재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영재성에 비해 예술 영재성의 발현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예술 영재교육은 중·고등 학교급(예술 중학교와 예술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예술 영재교육을 전개하는 실정이다.

예술적 영재성을 예술적 전문성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Subotnik & Jarvin, 2005; Subotnik, Jarvin, Moga, & Sternberg, 2003) 무엇보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예술관련 활동은 물론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분야에 비해 예술적 영재성은 일찍부터 발현되며, 일반 학생보다 영재의 경우 진로에 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갖기 때문에(Berger, 1989; Kelly & Cobb, 1991; Silverman, 1994; Willings, 1986), 예술가로서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술 방향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자신의 적성과 성격에 대한 판단, 혁신,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지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다(이기학, 1997; 지용근, 2004; Herr, Cramer, & Niles, 2004; Jarvin & Subotnik, 2010; Subotnik, 2002). 이에 예술영재 역시 예술적 전문성으로 진로를 지향하게 하려면, 자신과 상황에 대해 현실적이며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향자, 1992; 박경애, 2010; 왕가년, 1996; 이기학, 1997; Harren, 1984; Krumboltz, 1994; Lewis & Gilhousen, 1981; Nevo, 1987). 특히 음악가로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최진호, 정완규, 2009), 부모 및 역할모델의 지원(태진미, 2010; Gillespie & Harmann, 1999; Ploumis-Devick, 1983), 예술관련 경험을 통한 자신의 적성과 성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이 진로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최진호, 정완규, 2009; Holloway, 1984; Land, 1979). 그러므로 예술성과 성격, 진로 전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지원 및 지지)은 예술영재의 수행 행동은 물론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독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예술영재는 타고난 예술성, 흥미 및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술관련 활동에 대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못을 할 것 같은 두려움(Buescher, 1991; Silverman, 1994), 자신의 이상 및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스트레스(Delisle, 1982; Kerr, 1990), 지나친 기대에 대한 부담감(Kerr, 1991), 그리고 기대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때 또래로부터 받는 적대감(Clinkenbeard, 1991; Ford, 198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영재는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Buescher, 1991; Ford, 1989; Karnes & Oehler-Stinnet, 1986) 자신의 예술적 성취 및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Siegle & Schuler, 2000)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완벽주의는 수행 혹은 성과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 혹은 기대를 부여하는 사고와 행동의 결합체로서(Burns, 1980), 성공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제거해야 하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간주해왔다(Adderholdt-Elliott, 1991; Burns, 1980; Pacht, 1984). 그러나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성향도 있음이 보고되

면서 완벽주의에 대해 연속체적 관점을 제기하는 입지도 등장하고 있다(Adler, 1973; Bransky, Jenkins-Friedman, & Murphy, 1978; Dabrowski, 1964;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amachek, 1978; Maslow, 1970; Parker & Stumpf, 1995; Roedell, 1984; Schuler, 2000; Silverman, 1990). 즉, 완벽주의는 좌절과 무능력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만족감과 창의적 산출물을 이끌어 내는 힘이 되기 때문에(Blatt, 1995; Dixon, Lapsley, & Hanchon, 2004; Hewitt & Flett, 1991; LoCicero & Ashby, 2000; Rice & Lapsley, 2001; Schuler, 2000, 2002), 생각과 행동이 완벽주의 연속체 중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하다(Green & 이미순, 2010).

부적응적 혹은 병리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설정해 놓은 기준과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자신의 무능력과 실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분노, 좌절감을 느끼며, 반복해서 실수를 할까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과제해결 시간을 지연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등 자신감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드러낸다(Addholdt, 1984; Ford, 1989; Hewitt & Dyck, 1986; Hewitt & Flett, 1993; Hollingworth, 1926; Lovecky, 1994; Mendaglio, 1994; Webb, Meckstroth, & Tolan, 1982; Whitmore, 1980). 반면에 적응적 혹은 정상의 완벽주의 성향을 보일 경우, 비록 설정해 놓은 기준과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접하게 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실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어, 실수 및 실패의 좌절감을 완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Adderholdt-Elliott, 1987; Dixon et al., 2004; Maddi, 1976; Schuler, 2000, 2002).

완벽주의가 영재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지속되고 있다. 성인 및 영재를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김혜영, 2008; 박혜옥, 2009; 이정림, 2005; 현진원, 1992; 홍혜영, 1995; Brown, 1993; Hewitt & Dyck, 1986; Lynn, Bieling, & Wallace, 1994), 완벽주의와 불안,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으며, 자아효능감, 또래관계, 학업성취 및 만족도, 그리고 진로 선택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uler, 2000, 2002; Siegle & Schuler, 2000; Webb et al., 1982; Whitmore, 1980). 반면에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최정임, 1998)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려고 더 노력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Bransky, 1989; Schuler, 2000). 그러므로 예술적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예술영재가 경험하는 문제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발판을 마련할 때, 단순히 예술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연속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완벽주의 성향은 왜 생기는 것인가? 물론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 내적인 특성과 사회·문화로부터 받는 기대 및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영재의 경우 예술적으로 우수하고 싶다는 욕구를 타고 나며, 어릴 때부터 예술영재가 보여주는 재능에 부모 및 주변 인물들이 과장된 반응을 보여(칭찬과 보상), 이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게다가 예술영재가 접하는 예술가를 역할모델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재능과 발전과정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괴리를 경험할 수 있다(Green & 이미순, 2010).

또한 완벽주의 성향은 예술영재는 물론 예술영재와 상호작용하는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술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이 비단 자신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영재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도 향할 수 있어, 성공과 완벽에 대한 기준과 기대를 자신, 타인, 그리고 사회로 부과하게 된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을 자기지향, 타인지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비교적 부적응과 관련이 적으며(홍혜영, 1995), 장점 수용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수연, 1999). 영재의 성과 학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어(김혜영, 2008), 예술영재의 성과 학년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예술영재의 인식과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예술영재 중 음악영재에 집중하여 이들 학년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 스트레스, 그리고 진로결정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및 스트레스가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학년수준에 따라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학년수준에 따라 음악영재의 스트레스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학년수준에 따라 음악영재의 진로결정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유형은 합리적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학년수준에 따른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스트레스 및 진로결정 유형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n=88)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술 중학교 음악영재를 성으로 구분하였을 때, 남자가 9명(10.2%) 그리고 여자가 79명(89.8%)으로 나타나, 예술 중학교 음악영재의 성비가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수준으로 구분하면, 중학교 1학년이 22명(25.0%), 중학교 2학년이 33명(37.5%),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33명(37.5%)이었다. 음악전공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악 전공이 40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악이 36명(40.9%)으로 나타났다(<표 1>).

&lt;표 1&gt; 학년 및 음악전공영역별 학생의 분포

구분	중 1		중 2		중 3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악	3	19	2	16	0	0	40
작곡	0	0	1	9	0	0	10
성악	0	0	1	4	1	30	36
기타(지휘자)	0	0	0	0	1	1	2
전체	3	19	4	29	2	31	88

예술 중학교 음악영재에게 장래 희망을 질문하였을 때, 36명(40.9%)의 학생이 연주를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사 혹은 교수를 희망한 학생이 34명(38.6%)으로 나타났다. 장래 희망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음악 사업가 및 기타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경향이 완벽주의, 스트레스 및 진로결정 유형과 관련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 보지 못하였다.

&lt;표 2&gt; 학년 및 장래 희망별 학생의 분포

구분	중 1		중 2		중 3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주가	1	9	1	16	1	8	36
교사/교수	1	10	2	11	0	10	34
음악 사업가	0	0	0	2	0	6	8
기타	1	0	1	0	1	7	10
전체	3	19	4	29	2	31	55

##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음악성(musicality)에 대한 개인 내적 완벽주의 성향 외에도 음악을 매개로 이뤄지는 음악영재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대인간 완벽주의 성향을 연구하였다. 즉, 본 연구는 완벽주의 행동이 하나 그 이상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Bransky et al., 1978; Frost et al., 1990; Hamachek, 1978; Maslow, 1970; Parker & Stumpf, 1995; Schuler, 1994, 2000), 완벽주의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그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Hewitt & Flett, 1989, 1991)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3개 차원(자기 지향, 타인 지향, 사회적으로 부가된)을 측정하는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중학교 학생임을 감안하여, 문항 수를 조절하고 반응 척도를 수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수정 및 조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자기 지향(8문항), 타인 지향(3문항),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가된(4문항) 완벽주의를 측정한다고 판단되는 문항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15개 문항 3개 차원의 요인별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2~.87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등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가정할 수 있었다.

음악영재의 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해, 이정순(1988)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한 44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자아발전,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에 대해 20문항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9~.85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음악영재의 개인 성향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의한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개인 외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진로결정 척도(Asse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 Harren, 1984)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진로결정 척도는 합리적, 의존적 및 직관적 진로결정 유형에 대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추출한 요인과 요인별 문항을 분석하였을 때, 합리적(4문항), 관계적(4문항) 및 과도적(4문항) 진로결정 유형이 요인별로 추출된 문항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분석에서 합리적, 관계적 및 과도적 진로결정 유형을 적용하여 음악영재의 진로결정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의 신뢰도는 .72~.84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설문지 자료와 후속 자료 분석 시 SPSS 18.0 Window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수합한 자료들의 경향성을 조사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남·녀 성비가 불균등하여, 성을 포함하지 않고, 학년수준에 의한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음악영재의 학년수준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 스트레스 및 진로결정 유형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합된 완벽주의 성향, 스트레스, 그리고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학년 효과가 나타난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종속변인에서 학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과 Turkey LSD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영재의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 유형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Type I Error를 조절하기 위해,  $\alpha = .05$  수준에서 Bonferroni 수정방법을 적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학년의 효과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학년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세 가지 완벽주의 하위 요인(‘자기지향,’ ‘타인지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대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대상의 학년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 대상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 요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학년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영역	중 1			중 2			중 3			전 체		
	M	SD	N	M	SD	N	M	SD	N	M	SD	N
자가지향	2.70	.30	22	3.04	.67	33	3.33	.35	33	3.06	.42	88
타인지향	3.14	.39		3.17	.49		3.70	.50		3.36	.53	
사회적으로 부과된	3.61	.35		3.81	.48		4.02	.34		3.84	.43	

이상의 표면적인 평균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Wilks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완벽주의 성향의 조합된 평균(combined independent variables, 평균벡터)은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년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Wilks'  $\lambda=.56$ ,  $F_{(6, 166)}=9.25$ ,  $p<.001$ , 효과 크기=.25). 다시 말해서, 예술 중학교 영재의 학년수준은 완벽주의 성향의 조합된 평균의 변량을 25% 정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술 중학교 학생의 학년수준이 완벽주의 하위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학년수준에 따라 완벽주의 하위 변인, ‘자가지향 완벽주의(Univariate  $F_{(2, 85)}=22.38$ ,  $p<.001$ ),’ ‘타인지향 완벽주의(Univariate  $F_{(2, 85)}=13.68$ ,  $p<.001$ ),’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Univariate  $F_{(2, 85)}=6.72$ ,  $p=.002$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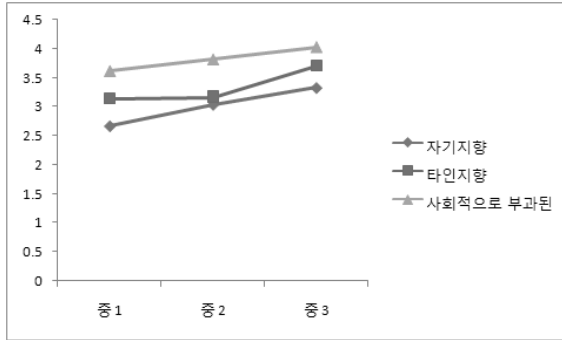
<표 4>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학년의 효과

효과	종속변인	Univariate $F$	.df	$p$
학년	자가지향	22.38*	2/85	<.001
	타인지향	13.68*	2/85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6.72*	2/85	.002

Note. \*Bonferroni adjusted  $p<.017$

이에 3개 학년수준 어디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Turkey의 LSD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예술 중학교 학생들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중 3학년 학생( $M=3.33$ )은 중 2학년 학생( $M=3.04$ )과 중 1학년 학생( $M=2.70$ )에 비해, ‘자가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여, 하는 모든 일(공부, 연주 등)에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 $p=.001$ ,  $p<.001$ ). 중 3학년 학생( $M=3.70$ )은 중 2학년 학생( $M=3.17$ )과 중 1학년 학생( $M=3.14$ )에 비해,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도 강하여, 주위 사람(친구)들이 그들의 모든 일을 최고로 잘하기를 바라며, 주변 친구가 연주 혹은 실기평가에서 실수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였다( $p<.001$ ,  $p<.001$ ). 그리고 중 2학년 학생( $M=3.81$ )과 중 1학년 학생( $M=3.61$ )에 비해, 중 3학년 학생( $M=4.02$ )은 ‘사회에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도 높아,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인식하였다( $p=.005$ ,  $p=.003$ ).



[그림 1] 학년수준에 따른 완벽주의

## 2. 스트레스에 대한 학년의 효과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자아발전’,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학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술 중학교 학생들은 각 하위 요인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하였다.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중 3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 1학년 학생의 경우에 또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연구 대상의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5>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영역	중 1			중 2			중 3			전 체		
	M	SD	N	M	SD	N	M	SD	N	M	SD	N
자아발전	2.46	.56	22	2.70	.51	33	3.17	.64	33	2.82	.64	88
부모자녀 관계	3.43	.36		3.70	.37		4.26	.39		3.84	.50	
또래관계	1.98	.69		2.33	.51		3.47	.56		2.29	.60	
학교생활	2.91	.68		3.09	.50		3.45	.57		3.18	.61	



이상의 표면적인 평균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Wilks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의 조합된 평균은 학년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Wilks'  $\lambda=46$ ,  $F(8, 164)=9.71$ ,  $p<.001$ , 효과 크기=.32), 학년수준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변량을 32%가량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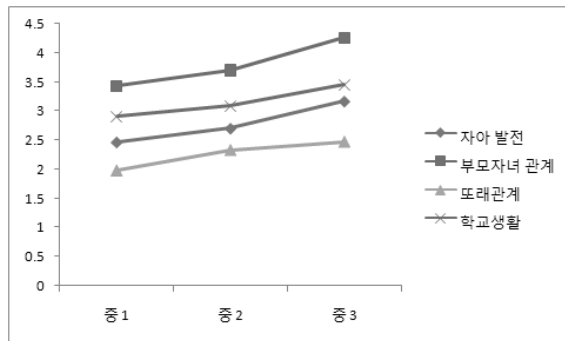
예술 중학교 학생의 학년수준이 스트레스 하위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예술 중학교 학생의 학년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하위 변인, ‘자아발전 스트레스(Univariate  $F(2, 85)=11.32$ ,  $p<.001$ )’,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Univariate  $F(2, 85)=36.41$ ,  $p<.001$ )’, ‘또래관계 스트레스(Univariate  $F(2, 85)=4.76$ ,  $p=.011$ )’, 그리고 ‘학교생활 스트레스(Univariate  $F(2, 85)=6.33$ ,  $p=.003$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 스트레스에 미치는 학년의 효과

효과	종속변인	Univariate $F$	$df$	$p$
학년	자아발전	11.32*	2/85	<.001
	부모자녀 관계	36.41*	2/85	<.001
	또래관계	4.76*	2/85	.011
	학교생활	6.33*	2/85	.003

Note. \*Bonferroni adjusted  $p<.013$

이에 3개 학년수준별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urkey의 LSD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술 중학교 학생들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년수준별로 예술 중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스트레스는 그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또래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그림 2]).



[그림 2] 학년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 3학년 학생( $M=3.17$ )은 중 2학년 학생( $M=2.70$ )과 중 1학년 학생( $M=2.46$ )에 비해, ‘자아발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실기 성적)으로 고민을 하며, 노력해도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p<.001$ ,  $p<.001$ ). 중 3학년 학생( $M=4.26$ )은 중 2학년 학생( $M=3.70$ )과 중 1학년 학생( $M=3.43$ )에 비해, ‘부모자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께서 시키는 일이 많고,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다고 응답하였다( $p<.001$ ,  $p<.001$ ). 중 1학년 학생( $M=1.98$ )에 비해, 중 3학년 학생( $M=3.47$ )은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즉, 중 3학년 학생들은 친구들과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거나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그러나 중 3학년 학생과 중 2학년 학생( $M=2.33$ )의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253$ ). 스트레스 하위 변인 중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학년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 3학년 학생( $M=3.45$ )은 중 2학년 학생( $M=3.09$ )과 중 1학년 학생( $M=2.91$ )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p=.001$ ,  $p<.001$ ). 중 3학년 학생은 다른 학년 학생들에 비해 예술 중학교 생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적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3.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학년의 효과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영재의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학년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세 가지 진로결정 유형 하위 요인(‘합리적’, ‘관계적’과 ‘과도적’ 진로결정)에 대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예술 중학교 영재들은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결정 하위 유형 중에, 예술 중학교 학생들은 ‘관계적 진로결정’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도적 진로결정’ 유형을 보이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은 학년별 진로결정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7> 학년별 진로결정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영역	중 1			중 2			중 3			전체		
	M	SD	N	M	SD	N	M	SD	N	M	SD	N
합리적 진로결정	2.93	.36	22	3.07	.36	33	3.43	.50	33	3.17	.47	88
관계적 진로결정	3.65	.63		3.56	.54		3.53	.58		3.57	.57	
과도적 진로결정	1.76	.36		1.55	.56		1.35	.46		1.53	.50	

이상의 표면적인 평균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Wilks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진로결정 유형의 조합된 평균은 학년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Wilks'  $\lambda=.70$   $F(6, 166)=5.45$ ,  $p<.001$ , 효과 크기=.165). 다시 말해서, 예술 중학교 학생의 학년수준은 진로결정 유형의 조합된 평균의 변량을 16.5% 정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술 중학교 학생의 학년수준이 진로결정 유형의 하위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그 결과, 학년수준에 따라, ‘합리적 진로결정’(Univariate  $F(2, 85)=10.85, p<.001$ )과 ‘과도적 진로결정’(Univariate  $F(2, 85)=4.95, p=.009$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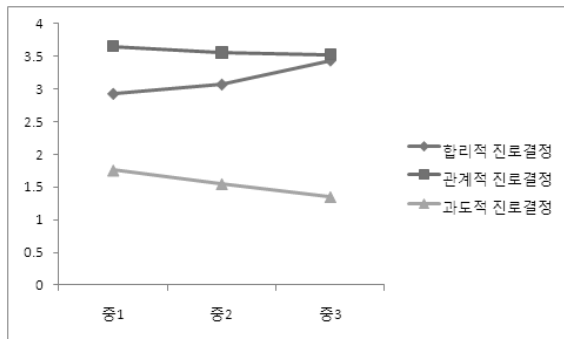
<표 8>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의 효과

효과	종속변인	Univariate $F$	$df$	$p$
학년	합리적 진로결정	10.85*	2/85	<.001
	관계적 진로결정	.28	2/85	.757
	과도적 진로결정	4.95*	2/85	.009

Note. \*Bonferroni adjusted  $p<.017$

이에 3개 학년수준별로 ‘합리적 진로 결정’과 ‘과도적 진로결정’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Turkey의 LSD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예술 중학교 학생들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합리적 진로결정’ 성향은 증가하는 반면, ‘과도적 진로결정’ 성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

‘합리적 진로결정’을 중심으로 학년별 비교를 하면, 중 3학년 학생( $M=3.43$ )은 중 2학년 학생( $M=3.07$ )과 중 1학년 학생( $M=2.93$ )에 비해,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할 때 매우 합리적으로 하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p<.001$ ). 반면에 중 3학년 학생( $M=1.35$ )은 중 2학년 학생( $M=1.55$ )과 중 1학년 학생( $M=1.76$ )에 비해, ‘과도적 진로결정’ 경향이 낮았다( $p<.001, p<.001$ ). 다시 말해서, 예술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은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결정하는 정도가 다른 학년의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학년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유형

4.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의 영향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스트레스 및 진로결정 유형에 대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표 9>), 완벽주의 하위 요인들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r$  자기지향 사회적=.466,  $r$  자기지향 타인지향=.408). 그리고 스트레스 하위 요인들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발전’ 스트레스 요인은 기타 스트레스 요인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r$  자아발전 학교생활=.540,  $r$  자아발전 또래관계=.338). ‘합리적 진로결정’ 유형은 ‘자기지향’ 완벽주의( $r$ =.417), ‘자아발전’ 스트레스( $r$ =.360),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 $r$ =.330) 그리고 ‘학교생활’ 스트레스( $r$ =.307)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발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영재는 ‘합리적인 진로결정’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가 예술 중학교 영재의 ‘합리적인 진로결정’ 유형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합리적 진로결정을 예측함에 있어, 이상의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9> 완벽주의, 스트레스 및 진로결정 유형 간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완 벽 주 의	1. 자기지향								
	2. 타인지향	.408**							
	3. 사회적으로 부과된	.466**	.444**						
스 트 레 스	4. 자아발전	.191	.224*	.127					
	5. 부모자녀 관계	.419**	.352**	.233*	.364**				
	6. 또래관계	.144	.102	.147	.338**	.267*			
	7. 학교생활	.157	.123	.093	.540**	.213*	.360**		
진 로 결 정	8. 합리적 진로결정	.417**	.078	.165	.360**	.330**	.121	.307**	
	9. 관계적 진로결정	-.148	-.028	-.061	-.225*	.003	-.264*	-.230*	-.217*
	10. 과도적 진로결정	-.187	-.211*	-.159	-.183	-.264*	-.138	.018	-.022

Note. \* $p$ <.05, \*\* $p$ <.01

예술 중학교 영재의 합리적인 진로 결정력에 대한 완벽주의 및 스트레스 하위 요인들의 예측력을 살펴본 결과, 예술 중학교 영재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beta$ =.40)와 ‘자아발전 스트레스’( $\beta$ =.21)가 합리적 진로 결정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F$ (2, 85)=14.55,  $p$ <.001), 합리적 진로결정력을 26% 정도 예측하였다.

&lt;표 10&gt; 완벽주의 및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i>F</i>	<i>p</i>	<i>R</i> <sup>2</sup>
	<i>B</i>	<i>SE</i>	베타					
(상수)	1.34	.35		3.85	<.001			
자기지향 완벽주의	.40	.11	.36	3.79	<.001	14.55	<.001	.26
자아발전 스트레스	.21	.07	.29	3.05	.003			

\*\**p*<.01, \**p*<.05

다시 말해서,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기발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예술 중학교 영재들은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예술 중학교 영재의 완벽주의와 스트레스 하위 요인들은 ‘합리적 진로 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악영재의 학년수준에 따른 완벽주의, 스트레스, 그리고 진로결정 유형을 살펴본 후, 완벽주의와 스트레스가 음악영재의 합리적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음악영재의 개인내적 특성 외 사회·문화적 기대 및 경험이 완벽주의, 스트레스, 그리고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였으므로, 음악영재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음악영재의 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영재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음악영재는 공부 및 연주에서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며, 연주 혹은 실기평가를 할 때 또래의 실수를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음악영재는 주변에서 자신에게 부과하는 기대와 요구가 많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수준이 높아지면서, 음악영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음악영재는 노력만큼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자아발전), 부모의 간섭과 기대가 지나쳐서(부모자녀관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또래관계), 그리고 예술 중학교 생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학교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수준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음악영재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여, 자신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신중하며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뤄놓은 과도적 특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음악영재의 완벽주의와 스트레스가 이들의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을 때, 음악영재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발전 스트레스가 합리적 진로 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발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음악영재는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입장(김혜영, 2008; 박혜옥, 2009; 이정림, 2005; 현진원, 1992; 홍혜영, 1995; Brown, 1993; Hewitt & Dyck, 1986; Lynn et al., 1994; Schuler, 2000, 2002; Siegle & Schuler, 2000; Webb et al., 1982; Whitmore, 1980)과 대비되는 것으로, 오히려 음악영재의 경우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의 적응적인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최정임, 1998; Bransky, 1989; Schuler, 2000).

이에 구체적으로 연구의 결과 및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전공분야에서 요하는 음악적 소양을 어느 정도 겸비한 상태에서 예술 중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음악가로서 진로를 결정하고, 예술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능력을 예술적 경지까지 발전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음악영재는 상당한 양의 연습과 집착력(commitment)을 통해 음악영역에서 요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Subotnik, 2000, 2004; Subotnik & Jarvin, 2005; Subotnik et al., 2003). 이때 음악영재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궁극적인 예술적 전문성을 위해 시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발전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예술적 전문성 발현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Bastian, 1994;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7; Ochse, 1990), 능력과 실수에 대한 비판과 실망을 극복하는 방안 역시 다음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집착력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음악영재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발전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영재성 분야와 달리, 음악영재는 동일한 곡을 자신이 그리고 또래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서로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래비교와 경쟁관계에서, 음악영재는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은 노력과 연습을 투입해야 할지 피드백을 받는다(Sosniak, 1985). 이에 음악영재는 마찬가지로 또래에게 높은 성취와 수행을 기대하지만, 음악영재는 음악에 대한 열정, 목표, 관심, 그리고 문제를 또래와 공유하기 때문에(Davidson & Scripp, 1994)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여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낮으며, 오히려 음악영재가 경험하는 여러 정서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완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해석된다(Subotnik, 2000).

한편 예술적 전문성을 신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자유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연습시간표를 관리하는 방향에서 자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Subotnik & Jarvin, 2005), 음악영재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 음악영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음악영재를 관리하고 통제하기보다 음악영재로 하여금 좌절과 실패에 대해 인내하고,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자녀의 음악성을 지도할 교사를 찾아 연계하는 부모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음악영재의 음악성과 발달특성을 고려한 지도방안으로 사료된다(Subotnik, 2000; Subotnik & Jarvin, 2005; Subotnik et al., 2003). 다시 말해서, 타고난 음악성이 점차 예술적 전문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은 감소하나, 교사의 전문적인 역할은 점차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교사 역시 초기 음악영재의 독특한 특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레슨을 기획해야 하지만, 예술 중학교 재학 중 혹은 그 이후 음악영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능과 기술적 측면보다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역할에 집중하여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음악영재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음악영재에게 맞는 레퍼토리를 선택하고 약점을 완화하도록 연습을 유도하며,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델의 역할을 보여주고, 도전과 위기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독려해야 하는지(self-promotion) 그 방법을 지도하며, 음악영재의 예술적 전문성을 공식화하는 네트워킹(환경) 조성까지 그 역할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Subotnik, 2000; Subotnik & Jarvin, 2005; Subotnik et al., 2003). 그러므로 이상에서 언급한 교사의 전문적 역할은 바로 음악영재의 타고난 음악성, 자기발전을 향한 노력, 그리고 집착력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되며(Subotnik, 2000; Subotnik & Jarvin, 2005; Subotnik et al., 2003), 교사는 음악영재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기발전 스트레스의 적응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지도 방안에 반영하는 데 관심과 연구를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한 음악영재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Subotnik, 2000), 관악기, 성악 혹은 작곡을 전공하는 음악영재는 현악기 혹은 피아노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음악을 접하게 되며, 전공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신체 및 인지발달 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여 연구 관련 변인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음악영재의 성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 및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표집한 남학생의 수가 적어, 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및 스트레스가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나, 실제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충분히 조명하지 않아, 음악영재가 합리적으로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 스트레스가 완벽주의 성향을 매개하는지 아니면 완벽주의 성향이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진로결정과 음악영재의 장래 희망(연주가, 교사, 음악 사업가, 기타)을 결부시키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 장래 희망을 언급할 당시 음악영재들이 자신과 상황에 대해 현실적이며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력을 보여주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혜영 (2008). **중학교 수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경애 (2010). 비구조화된 REBT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3, 123-134.
- 박혜옥 (2009). **음악영재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완벽주의, 스트레스, 진로 결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왕가년 (1996).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의식성숙도와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수연 (1999). **자기수용과 자기존중감 및 완벽주의 성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정림 (2005). **초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정순 (199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지용근 (2004).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71-88.
- 최정임 (1998). **완벽주의 성향, 시험불안, 학업 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진호, 정완규 (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 태진미 (2010). **초등 영재와 일반학생의 음악경험 및 음악흥미도의 차이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9, 35-58.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ddholdt, M. R. (1984).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upon the self-concepts of undergraduate women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 Adderholdt-Elliott, M. R. (1987). *Perfectionism: What's bad about being too good?* Minneapolis, MN: Free Sprit.
- Adderholdt-Elliott, M. R. (1991). Perfectionism and the gifted adolescent. In M. Bireley & J.



- Genshaft (Eds.), *Understanding the gifted adolescent: Educational, developmental, and multicultural issues* (pp. 65-75). NY: Teacher College Press.
- Adler, A. (1973). *Superiority and the social interest: A collection of later writings*. NY: Viking Press.
- Bamberger, J. (1986). Cognitive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musically gifted children. In R. Sternberg & J.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pp. 388-4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tian, H. G. (1994). From the everyday world and the musical way of life of highly talented young instrumentalists. In K. A. Heller & E. A. Hany (Eds.),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Vol 2: Proceedings of the Third European Conference of the European Council for high ability* (pp. 153-163). Seattle, WA: Hogrefe & Huber.
- Berger, S. L. (1989). *College planning for gifted students*. 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 Bransky, P. S. (1989). *Academic perfectionism in intellectually gifted adolescents: The roles of attribution, response to failure, and irrational belief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 Bransky, T., Jenkins-Friedman, R., & Murphy, D. (1978). *Identifying gifted students at risk for disabling perfectionism: The role of the school psychologist*.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Brown, S. R. (1993). *Perfectionistic thinking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Buescher, T. (1991). Gifted adolescents. In N. Colangelo & G.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382-401).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3, 70-76.
- Clinkenbeard, P. R. (1991). Unfair expectations: A pilot study of middle school students' comparisons of gifted and regular classe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5, 56-63.
-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 Whalen, S. (1997).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success and failu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browski, K. (1964). *Positive disintegration*. London: Little, Brown, & Co.
- Davidson, L., & Scripp, L. (1994). Conditions of giftedness: Musical development in the preschool and elementary years. In R. F. Subotnik & K. D. Arnold (Eds.), *Beyond Terman: Contemporary longitudinal studies of giftedness and talent* (pp. 155-185). Norwood, NJ: Ablex.

- Delisle, J. (1982). The gifted underachiever. *Roepers Review*, 4, 16-18.
- Dixon, F. A., Lapsley, D., & Hanchon, T. A. (2004). An empirical typology of perfectionism in gif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48, 95-106.
- Ford, M. A. (1989). Students' perceptions of affective issues impacting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school performance of gifted/talented youngsters. *Roepers Review*, 11, 131-134.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Gillespie, R., & Harmann, D. L. (1999). Career choice among string music education students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 266-278.
- Green, M., & 이미순 (2010). **영재상담**. 서울: 한국교총영재교육원.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ren, V. A.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 (6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89).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Canadian Psychology*, 30, 339 (abstract).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ollingsworth, L. S. (1926). *Gifted children: Their nature and nurture*. NY: MacMillan.
- Holloway, A. J. (1984). *A descriptive analysis of musical experiences, employment patterns, career aspirations, curricular content, and attitudes of doctoral aspirants in mus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Jarvin, L., & Subotnik, R. F. (2010). Wisdom from conservatory faculty: Insights on success in classical music performance. *Roepers Review*, 32, 78-87.

- Karnes, F., & Oehler-Stinnet, J. (1986). Life events as stressors with gifted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23*, 406-414.
- Kelly, K. R., & Cobb, S. J. (1991). A profile of the caree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young gifted adolescents: Examining gender and multicultural differences. *Roeper Review, 13*, 202-206.
- Kerr, B. A. (1990). Leta Hollingworth's legacy to counseling and guidance. *Roeper Review, 12*, 178-181.
- Kerr, B. A. (1991). *A handbook for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1*, 149-153.
- Land, M. S. (1979). *The role of counseling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musicians: A case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 LoCicero, K. A., & Ashby, J. S. (200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in middle school age gifted versus non-gifted students. *Roeper Review, 22*, 182-184.
- Lovecky, D. V. (1994).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Different minds. *Roeper Review, 17*, 116-120.
- Lynn, E., Bieling, P. J., &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nati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297-316.
- Maddi, S. R. (1976).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 Homewood, IL: Dorsey Press.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Rev. ed.). NY: Harper & Row.
- Mendaglio, S. (1994). Gifted sensitivity to criticism. *Gifted Child Today Magazine, 17*, 24-25.
- Nevo, O. (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39-250.
- Ochse, R. (1990). *Before the gates of excellence: Determinant of creative geniu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arker, W. D., & Stumpf, H. (1995). An examin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with a sample of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3*, 372-383.
- Ploumis-Devick, E. (1983). *Career development patterns of male and female music education majors at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Rice, K. G., & Lapsley, D. K. (2001). Perfectionism, coping, and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 1-12.
- Roedell, W. C. (1984). Vulnerabilities of highly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6, 127-130.
- Schuler, P. A. (1994). *Goals and work habits survey*. Unpublished instrument. Storrs, C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Schuler, P. A. (2000). Perfectionism and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1, 183-196.
- Schuler, P. A. (2002). Perfectionism in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 Neihart, S. M. Reis, N. M. Robinson, & S. M. Moon (E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What do we know?* (pp. 71-79).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Siegle, D., & Schuler, P. A. (2000). Perfectionism differences in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Roeper Review*, 23, 39-44.
- Silverman, L. K. (1990). The crucible of perfectionism. In B. Holyst (Ed.), *Mental health in a changing world* (pp. 39-49). Warsaw: The Polish Society for Mental Health.
- Silverman, L. K. (1994).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Denver, CO: Lovelock Publishing.
- Sosniak, L. (1985). Learning to be a concert pianist. In B. Bloom (Ed.),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pp. 19-67). NY: Ballantine.
- Subotnik, R. F. (2000). The Julliard model for developing young adolescent performers: An educational prototype. In C. F. M. van Lieshout & P. G. Heymans (Eds.), *Developing talent across the lifespan* (pp. 249-276). PA: Psychology Press.
- Subotnik, R. F. (2002). Talent developed: Conversations with masters in the arts and science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5, 290-302.
- Subotnik, R. F. (2004). Transforming elite musicians into professional artists: A view of the talent development process at the Juilliard School. In L. V. Shavinina & M. Ferrari (Eds.), *Beyond knowledge: Extracognitive aspects of developing high ability* (pp. 137-166). Mahwah, NJ: Erlbaum.
- Subotnik, R. F., & Jarvin, L. (2005). Beyond expertise: Conceptions of giftedness as great performance.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2nd ed., pp. 343-357).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botnik, R. F., Jarvin, L., Moga, E., & Sternberg, R. J. (2003). Wisdom from gate-keepers: Secrets of success in music performance. *Bulletin of Psychology and the Arts*, 14, 5-9.
- Webb, T. J., Meckstroth, E. A., & Tolan, S.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Columbus, OH: Ohio Psychology Press.
- Whitmore, J. R. (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Allyn and Bacon.
- Willings, D. (1986).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Enriched career search. *Roeper Review*, 9, 95-100.

= Abstract =

##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Stress of Musically Gifted on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Lee, Mi-Soon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differences in styles of perfectionism,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gifted musicians by their grade level and examine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stress of gifted musicians on their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88 gifted musicians attending in the middle school of ar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mensions of perfectionism by the grade level of gifted musicians. The tendency of self-oriented, other-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higher with grade leve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level in stresses that gifted musicians experienced. The higher a grade level was, the more gifted musicians got stresses in self-development,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The effect of grade level on career decision-making was significant in the rational and the transi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he higher a grade level was, the more rational decision-making was but the less transitional decision-making was. Meanwhile, whe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stress of gifted musicians on the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was examined, the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was predicted by self oriented perfectionism and self-development stress.

**Key Words:** Musically gifted, Perfectionism, Stress,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1차 원고접수: 2012년 4월 16일
수정원고접수: 2012년 6월 19일
최종게재결정: 2012년 6월 19일